

치 사

오늘 ‘한반도평화통일불교실천기획단’ 창립을 축하하며, 관계자 여러분과 창립식에 참여하신 사부대중 모든 분들께 격려와 더불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대의 역사에서 열강의 패권주의로 인해 우리는 남과 북으로 영토가 나뉘고 이념의 대치로 어언 70여년이라는 긴 세월을 대립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70여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남과 북으로 흩어진 가족들의 이산의 고통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전쟁의 공포는 늘 우리 민족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주변국의 자국이기주의는 우리의 앞날을 어렵게 하는 한 요인입니다.

최근 동북아를 중심에 놓고서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는 국력을 등에 업고 영향력 확장을 위해 사실상 전쟁과 같은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청산되지 않은 일제의 만행과 남중국해 일대의 영토분쟁, 태평양과 대륙을 향한 교통로 확보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의 연속이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머니가 자기 외아들을 목숨을 걸고 지키듯이, 모든 살아 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일으키라’고 말하는 숫타니파타의 한 가르침을 듣습니다. 또 부처님께서서는 이웃나라를 정복하려던 마가다 국왕에게 ‘죽이지 않고, 해치지 않으며, 이기지 않고, 적에게 이기도록 하지도 않으며, 슬프게 하지 않고, 법답게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전쟁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신 바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국가지도자와 분쟁의 당사자들이 새겨야 할 금구성언입니다.

이런 생명과 평화의 가르침을 우리 불자들이 앞장서서 지켜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한반도평화통일불교실천기획단’ 창립은 매우 의미 있으며, 향후 그 활동에 많은 기대를 하는 바입니다.

지난해 우리 종단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이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고자 여러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을 완전히 끝낸 종전(終戰) 상태가 아니라 합의에 의해 일시적으로 전쟁을 중단하고 있는 정전(停戰) 상태입니다. 70년 동안 이어져온 이 긴장과 대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남과 북이 함께 전쟁의 종식을 선언하고 평화로운 상태에서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 민족이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 동북아의 평화는 물론 세계 평화를 실현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직을 이끌어 주실 사부대중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응원을 보내며 종단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경색된 남북의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땅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여 항구적인 평화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불기 2558(2014)년 2월 1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